

## 영호남 하늘길 통해야 교류 늘고 상생 발전

### 광주~부산 하늘길 열자

〈상〉 철길보다 항공노선이 대안  
광주·부산 1시간 이내 이동 가능  
두 지역 경제계 숙원...여당서 나서  
지역민 해외여행 선택 폭 넓어져

#광주에서 일본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무역업을 하는 정태근(54)씨는 한 달에 3~4차례 광주와 부산을 오간다. 자가 운전을 할 경우에는 교통 체증 유무에 따라 4~5시간 소요됨에 따라 피곤함에 몸이 녹초가 된다. 그래서 한 두 차례는 불편하지만 KTX를 이용하고 있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오송역에서 환승, 경부선 KTX를 이용하지만, 이마저도 3시간여가 소요된다. 정씨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산 한번 가기 힘들다"면서 "영호남을 오가는 고속철이나 항공편이 하루 빨리 신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호남을 잇는 동서 간 교통망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로와 철도, 항공 등의 교통망이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남북을 잇고 있는 반면 동서를 잇는 사하간접자본시설(SOC)은 낙후되어 있다.

최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정치권에서 동서 간을 잇는 교통망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광주공항~부산 김해공항 직항 노선 개설을 추진하면서 영호남 하늘길을 열자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광주와 부산 두 도시를 오가려면 3시간 30분이 걸리는 고속버스를 타거나 차를 이용해야 한다.

철길 또한 약 5시간 40분이 걸리는 무궁화호가 하루 한 편 운행 중이고, 오송역에서 환승해서 부산과 광주를 오가는 KTX를 타는 방법 뿐이다. 하지만, 항공편이 생기면 광주-부산을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이처럼 양 지역 간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감안해 그동안 광주와 부산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두 도시 간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1년에는 부산시가 광주-부산 간 또는 무안-부산 간 항공 노선 개설을 한국공항공사 측에 요청했고, 부산 상공계도 항공 노선 개설에 적극적이었다. 앞서 2015년에는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부산 김해공항 노선 개설을 정부와 정치



5·18 민주광장 음악분수 화려한 물줄기

지난해 빛의 분수대로 이름 지어져 시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했던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의 분수가 12일 오후 화려한 음악분수로 재탄생되어 시험가동하고 있다. 흥겨운 대중가요와 진시영 작가의 미디어 아트작품 등으로 채워진 민주광장의 음악분수는 오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매일 밤 화려한 물줄기를 뿜어낼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권에 요청하는 등 양 지역에서 수 차례 영호남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었다.

이는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에서 2시간 대 고속철도 공약을 내놓기는 하지만, 건설비용과 시간을 따지면 요원하다는 점에서 항공 노선 신설이 현실적 대안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김해 노선은 지난 1997년 개통된 뒤 아시아나항공이 1일 1회씩 5년여 간을 운항해온 경험이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의 항공 노선 허가만 있으면 즉시 개통이 가능하다는 배경도 한 몫했다.

두 지역 경제계가 영호남 항공 노선 개설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영호남 지역 이동시간 단축으로 안정적인 물류 공급과 운송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양 지역의 경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영호남 상생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경제벨트 구축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이번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유치와 남부권 광역경제벨트 구축, 가덕도 신공항의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부산지역이 전략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데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서남권 항공 수요 유치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다. 인천공항을 이용할 광주·전남지역 승객 수요를 가덕도 신공항으로 돌릴 경우 명실상부한 동부권 1공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런 가운데 '광주~부산 항공노선 신설' 신호탄을 쏘아올린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부산시 관계자들을 만나 항공노선 신설 실무진 회의 등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노선 신설에 대한 경제성을 알아보기 위해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최고위원 제안에 지자체가 호응하면서 영호남 하늘길 부활이 본격 추진될 지 주목되고 있다. /최권욱 기자 cki@kwangju.co.kr

###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법사위 소위 통과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포함,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한 법안이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

과 다르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야구보다 재밌다



김도영



양현중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11월 착공한다 ▶2면

전남 양식 어민 추석 앞 '삼중고 시름' ▶6면

KIA, 믿음의 야구 '팀워크'로 뜨거운 9월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2023년도 전라남도 SOC확충 올해도 지속된다!

2023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 6,525억원 확보!  
정부의 SOC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도 7년 연속 1조원 이상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로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 열다!

